

세무공무원이 카페 차려 가출 여중생에 윤락강요

89.7.8

【대구=구대선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집을 나온 여중생들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강요해온 세무공무원 이태숙(31·여·서대구세무서 서기)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부터 대구시 중구 공평동 46 '사리랑' 카페를 차려놓고 아르바이트학생을 구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찾아온 윤아무개(15·광주 8여중3)양 등 여중생 3명을 접대부로 고용, 술손님들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혐의다.